

종단소식

조계종

마곡사 주지 진허스님



마곡사 일행문도회(대표 윤철·철용)는 9일 연화당에서 회의를 갖고 차기 주지로 동화사 선원장 진허스님을 추대키로 결의했다.

해인사 대장경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4월 3일 제38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통도사 보살수계 삼림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삼림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강원도민 위한 영산제



강원교구총무원(총무원장 백운)은 강원불교대학(학장 이선행)과 공동으로 7일 춘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민과 불교발전을 위한 사상 강연회 및 영산 대법회를 봉행했다.

외국인에 다도예법 강의

신촌 불원사(주지 대운)는 25일 오후 2시 삼천불전에서 심가을 말레이시아 태극 등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 및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도예법 및 시음회를 개최한다.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기꺼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천태종

금강불교대 총동문회

금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박용관)는 21일 오후 3시 30분 제1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진각종

서울밀교대학 입학식

진각대학 부설 서울 밀교문화대학(학장 석봉)은 11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제 2기 기초과정 및 제1기 증급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총지종

7사단 점등철탑 조성

총지종(원장 총지화)은 7일 총무회의를 열고, 강원도 화천군 7사단 내에 점등철탑을 조성키로 했다.

대한법회종

전방 점등불사 논의

총무원(원장 대호)은 17일 회의실에서 교구 총무원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방 점등불사, 부담금 납부 독려, 교화승 교육문제, 승려신분증 갱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원효종

원효사상연구회 설치키로

총무원(원장 무진)은 7일 회의실에서 15명의 각 교구 총무원장 및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연석회의를 갖고, 종단 부설 원효사상연구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법륜종

종도단체대회 연수교육

총무원(원장 해운)은 18~19일 총남 연가군 보림사에서 제 10회 종도 단체대회 및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해운스님은 "MF시대 극복과 불교 중흥을 위한 종단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이를 계기로 종도들 모두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도사 대학생 기숙사 말아

남녀 400명 수용...종교 교양강좌 등 실시

양산 통도사지비원(이사장 월하)은 경상남도학생기숙사를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1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계가 대불련등 전국의 대학생포교활동에 큰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숙사 위탁운영을 통한 대학생포교는 향후 한국불교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천미희 기자>



◇교계 최초로 통도사 지비원이 위탁 운영하는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전경

"의식개혁으로 국난극복" 한마음선원 강남구법회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7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강남구법회를 봉행했다. '시대의 어둠 마음의 어둠 한 마음으로 밝히려'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강남지역 불자 5백여명이 동참했다.

다친 경제위기는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기 보다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강남주민들의 작은모임에서부터 의식개혁을 일으켜 생활속의 자기 성찰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육성해 자기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26년만에 승려대회

25일 '국난극복' 기원...전산총회서 선암사 직영 선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25일 선암사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태고종도 결의대회'를 갖는다.

는데 이번 승려대회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앞서 태고종은 18일 긴급 각 교구 총무원장 및 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결의문 및 세부 행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난극복'이라는 표면상의 명분과는 달리 지난해 23일 조계종 세민스님이 선암사를 무단점거, 철수한데 따른 규탄 및 종단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라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 1천여명의 종도들이 참석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려대회는 1976년 9월 '종단 수호와 발전'을 위한 승려대회 이래 처음 열리는 것이다.

또 이와관련해 7일 선암사에서 개최된 비상 전산총회에서는 △해 종행위자 의법조치 △선암사 종단 직영사할 관리 △선암사 수호와 삼보호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운법 해산스님 등 8명을 추가 제적시켰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부종수교의 순교정신은 물론 종도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하고 "자신을 정화하고 계율을 엄수하며 이익중생을 실천해 종단 발전과 자주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

과 합천불교연합회를 위한 합천불교연합대법회가 13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종파를 초월한 합천군 사암연합회(회장 종성)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부 법회, 2부 문화행사로 진행됐으며,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IMF극복·화합 법회 합천불교연합회

천국방 "종교편향 시정" 조계종과 내달 초 면담

IMF경제위기 극복 및 군민화합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의 천국방 국방장관의 면담요청과 관련, 이는 사실내 면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국방부 공중실 손병철 법사는 "11일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으며, 3월중에는 각 군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4월초쯤 면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편향대책위는 군내

광주 첨단지구에 첫 가람 탄생

무량선원 개원...직장인 선방도 개설 '도심포교'

광주 첨단지구 포교의 근본도량이 될 포교당이 처음으로 개원했다. 광주 무량선원(주지 재연)은 8일 백양사주지 지선, 광산구청장 고재유씨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포항 종합불교 복지시설 첫선

죽림사 교육원 5월개원 무료급식·진료·봉사활동

포항지역에도 무료급식, 무료진료, 청소년상담, 불교자원봉사(교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불교복지시설이 들어선다.

노인시설 자혜 방생원 도안사 총주호에 개원

서울 상계동 도안사(주지 해자)는 4월중 총주호 근처에 대지 7백평, 건물 3백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자혜방생원을 개원한다.



진각복지회 현판식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는 10일 통리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준비된 복지회'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관련기사 3면>

천안 이교도 난동관련 목사 고발등 강력대응

천안 광덕사 안양암내 갈릴리교회 광신도들의 해탈행위사건과 관련 천안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목조)가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천안시 불교사암연합회는 7일 보광사에서 비상대책위를 갖고 갈릴리교회 이창훈목사 검찰고발, 항의 문 발송, 공개사과 촉구 현수막 설치등을 결의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3rd Korea Buddhist Tradition Conference (Hae) at Seonhakwon. It features a portrait of a Buddhist monk, a list of sponsors, and details about the event including dates, location, and a list of participants.